

부모에 대한 태도와 청소년 적대감과의 관계

한상훈* · 강석기**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에 대한 태도와 청소년 적대감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규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부모에 대한 태도의 수준과 청소년의 적대감 수준을 각각 알아보고, 그 다음 부모에 대한 태도 수준에 따라 청소년의 적대감이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이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 적대감에 관계된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연구의 결과로는 첫째, 부모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청소년들의 과반수 정도만이 부모에게 좋은 태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나머지는 부모 중 한 부모나, 부모 모두에게 좋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 둘째, 적대감에 있어서는 청소년들의 과반수 정도가 높은 수준의 적대감을 나타내고 있으며, 나머지도 대부분이 중간 수준의 적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의 적대감이 대체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부모에 대한 태도와 청소년의 냉소 관계에서는 부의 태도가 청소년의 냉소에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음이 밝혀졌다. 넷째, 부모에 대한 태도와 청소년의 분노와의 관계에서는 모의 태도가 청소년의 분노에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음이 밝혀졌다. 다섯째, 부모에 대한 태도와 청소년의 공격성과의 관계에서는 모의 태도에 따라 청소년의 공격성이 상대적으로 영향력을 많이 받고 있다. 여섯째, 부모에 대한 태도와 청소년의 적대감과의 관계에서는 모에 대한 태도에 따라 청소년의 적대감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청소년의 적대감은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으며, 대체적으로 부모보다는 모에게서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 청소년의 적대감 관리는 모의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적대감

* 충남대학교 교수 · 교육학

** 목원대학교 강사 · 사회복지학

수준을 낮출 수 방법이 강구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청소년을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부의 역할보다 모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I. 서 론

청소년기는 신체적으로 성인이 되기 위한 변화의 단계이고, 심리적·사회적으로 갈등이 극심하며 적응상의 어려움으로 정신적 문제를 발생하는 위험의 시기이다(도복능 외, 1999). 이 시기는 유년기와 성인기 사이의 과도기로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시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는 정신적으로 자아를 발견하면서 독립적인 존재가 되기 위한 과도기라 할 수 있으며, 이 시기에 청소년을 대하는 부모의 태도는 매우 중요하고, 부모의 잘못된 태도는 청소년의 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청소년 문제를 야기 시키게 될 것이다.

가정은 청소년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일차적인 사회환경이므로 청소년의 문제에 있어서는 가정적 환경요인을 고려해야 한다(이가연, 1993). 청소년은 가족 구성원들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많은 발달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부모는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한다(이윤진, 1988).

청소년기에 비해 신체적·심리적 변화가 심하지 않은 아동기에 대한 부모의 중요성을 살펴본다면 아동들은 자신의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는다고 생각이 되면, 가장 믿어야 할 사람과의 신뢰감이 상실되어 전반적인 인간관계에 대한 불신감이 생기게 되고, 심한 자괴감으로 빠지게 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특히 청소년기는 정신적·신체적 발달과정에서 혼란의 시기를 극복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부모로

부터의 훈육수단으로서 체벌을 당할 때 부모에 대해 심한 반감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것이 계속 누적될 때 청소년들은 타인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게 된다. 청소년은 부모로부터의 긍정적, 부정적 강화를 통해서 행동수정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바로 청소년의 친 사회적 행동과도 연결이 되는 것이다.

청소년기의 정신건강 문제들에 있어서는 기질적인 요인 이외에도 주변환경으로부터의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 환경의 일차적인 영향으로써 가족의 환경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김주연, 1996). 청소년은 가족환경 중에서도 특히, 부모에 대한 태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나 청소년은 현실적으로는 부모에게 의존하지만, 자신이 부모로부터 독립하려는 의지에 반해 가지게 되는 정신적 불균형으로 인해서 심한 갈등과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 그러므로 가족은 이러한 청소년의 갈등과 스트레스를 해결해 줄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자녀가 인지하는 부모에 대한 태도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청소년 비행의 원인으로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가정적인 요인이기 때문이다(김준호·김순형, 1995).

본 연구는 가정에 있어서 이러한 부모의 태도가 청소년기 자녀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인식이 되는가에 따라서 청소년이 가지게 되는 부모에 대한 태도와 적대감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며,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적대감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대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부모에 대한 태도

가족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서서히 인간관계가 부모에 대한 태도로부터 형성되어지기 때문에 인간은 성장을 하면서 부모와의 관계로부터 발달에 관한 적절한 태도를 지니게 된다. 특히 청소년기는 사춘기를 겪게 되는 심리적인 과도기이며, 개인적으로는 혼란으로부터 사회적인 질서로 옮겨가는 삶의 단계에 있다(Erikson, 1968). 따라서 청소년 자신은 가치충동과 욕구에 가장 효과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학습하게 되는 것이다(이상로·이관용, 1981).

부모의 태도는 어린 아동에게 사회성과 정서, 인격형성, 사회화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러한 부모와의 태도에 따라서 신경증과 정신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Kolb & Brodie, 1982). 부모의 태도가 온정적이고 허용적 일수록 자녀들의 적응력이 높아지게 되며, 부모의 태도가 적대적이고 통제적일수록 그 자녀는 공격적이 되어져서 적응을 잘하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Mussen, Conger, & Kagan, 1974).

부모의 잘못된 태도나 엄격한 태도를 경험한 자녀는 적대적으로 되어져 사회에서 부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연구 결과도 있다(조용문, 1985). 부모가 자녀를 수용하고 자율적인 태도를 보일 때에는 긍정적인 사회적응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나치거나 무조건적 수용의 태도를 보일 때에는 감정이나 분노의 통제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연구보고도 있다(임선화, 1987).

Freud는 어린 시절의 아동기 초기 경험이 일생의 성격을 결정짓는

다고 보았으며, 특히 양육자인 부모의 태도에서 갖게 되는 경험들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부모와의 지속적인 접촉으로 인한 초기의 애착이 넓은 사회로 발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Nye(1958)에 의하면 부모의 잘못된 태도로 인해서 자녀들과의 관계 약화가 발생되어 비행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또 부모의 태도로 인한 자녀와의 관계는 자녀들의 성격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보고도 있다(신민섭 외, 1993). 홍강의(1987)의 정신적 문제를 지니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있어서는 가족의 문제 중 부모에 대한 태도에 있어 갈등과 같은 가족관계 상의 어려움이 정신장애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보고된 바 있다. 또한 오경자·이혜련(1990)은 정신과적 장애의 원인 중 어린 시절에 부모에 대한 태도에 따른 관계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도 보고하였다.

이경호(1990)의 한국청소년들의 물질남용을 유발시키는 요인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적대적인 성격과 부모-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특히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한 태도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핵심적인 증상으로는 정신분열병, 성격 및 행동장애, 우울증, 등의 증상들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강현숙(1989)의 연구에서도 청소년기의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태도보다도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에 대한 태도가 청소년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Saavedra, 1980).

결국 부모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 때 청소년들은 건강한 성격이 형성되고 사회 적응도가 높은 반면, 부정적일 때에는 건강하지 못한 성격이 형성되어 사회 부적응을 야기 시킬 수 있다.

2. 적대감

적대감(hostility)은 생명체를 가진 상대방에게 위협적인 감정과 행동의 표현을 의미한다. 적대감을 가진 사람은 상대방과 나쁜 관계를 맺으며 냉소와 공격성을 드러낸다. 또 자신의 분노를 잘 처리하지 못하며, 이러한 감정들이 점점 더 거둬되거나 지속된다면 상대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적대감은 불쾌한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갑자기 발생하는 감정의 결과가 아니라 자신이 상대방을 용서할 수 없는 분노의 감정을 가질 때 일어난다. 즉, 분노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어 적대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적대감에 대한 연구는 A유형 행동양식의 연구와도 관련되어 있다. Friedman & Rosenman(1959)은 심장병 환자에게 잘 나타나는 공통된 행동양식의 특성을 A유형 행동양식(Type A Behavior Pattern: TABP)이라고 정의하였다. 이 행동양식의 특성은 긴장감, 경쟁의식, 공격성, 적대감, 불안 등을 보이는 동시에 신속함, 목표 지향적 열성 등의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면도 지니고 있다. 따라서 TABP는 행동 및 건강 문제를 다루는 영역에서 가장 널리 연구되는 정신 사회적 변인 중 하나가 되었다(Krantz & Manuck, 1984).

또한 A유형의 사람들은 관상성심장질환(Coronary Heart Disease: CHD)의 발병 가능성이 B유형에 비해 두 배나 된다는 보고도 있다(Jenkins, 1976). A유형의 행동이 관상성심장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이들은 항상 바쁘고, 급하며, 쉽게 적대감이나 분노를 보이며, 경쟁적이고, 야망을 강하게 나타내 보인다는 것이다(Hecker, et al. 1988; Dembroski, et al., 1989). 따라서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긍정적 면들인 신속함이나, 목표 지향적인 면들을 제외하고, A유형은 일반적으로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위험이 높은 인격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현대인의 주요 사망원인 중의 하나인 CHD를 Siegman(1994)은 A유형 행동에서 적대감으로 표현한다고 했다.

적대감이 높은 사람들은 보통사람보다 동맥경화증이 월등히 높다는 결과도 보고되었다(Shekelle, et al., 1983; Barefoot, et al., 1983). 따라서 적대감은 혈관이나 심장에 관련되어 건강에 위협적인 성격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적대감을 가진 사람은 직장생활에서도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스트레스와 직업만족도, 동료와의 관계에서 특히 문제가 발생된다(Houston & Kelly, 1989). 분노와 짜증이 증가함에 따라 혈압상승과 혈류증가 현상은 적대감이 많은 사람에게서 상대적으로 적대감이 적은 사람보다 많다는 것이 밝혀졌다(Suarez & Williams, 1989). 적대감에 포함이 되는 영역으로는 보는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지만 대체적으로 크게 냉소, 분노, 공격성으로 나눌 수가 있다. Barefoot(1992)와 Williams & Williams(1993)는 적대감을 보다 포괄적으로 정의해서 분노와 공격을 적대감의 하위 요인으로 개념화 했다.

분노(anger)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대방의 행동을 예상했을 때 냉소적인 사람이 자주 가지게 되는 감정이다. 개인의 욕구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방해로 받고 있을 때 나타나며, 불쾌함과 함께 나타나는 정서적 반응이다(Williams & Williams, 고경봉·조성희 역, 1996). 분노는 청소년기에 있어서 그들 스스로가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침해받았을 때 분노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청소년기에 있어서 분노의 원인은 자기주장의 방해와 기타 활동의 방해로 구분되는데, 자기주장의 방해에서 오는 분노가 가장 많다. 김교현·전경구(1997)에 따르면 사람들은 분노를 경험할 때 다양한 방식으로 이를 표현하거나 대처하며, 적대적 공격은 분노 표출의 한 형태로 보았다. 또 분노를 경험하면 할수록 분노의 통제가 어려워지고 신체병리의 정도가 높아지며, 성인의 경우 범죄나 가족폭력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심장 질환

과도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공격성(aggression)은 적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분노, 짜증 등과 같은 불쾌하고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나타나며 생명체에 대해 의도적으로 위해를 가하려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의미한다(Vasta, et al., 1992). 공격성은 대체로 1세 6개월 이후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Eron, et al., 1983), 6세를 전후해서 적대적인 공격성으로 변해간다(Hartup, 1974). 10세 이후의 공격적인 아동은 성인이 되면서 가족관계에서 많은 갈등을 겪는다는 연구결과가 있다(Caspi, et al., 1987). 청소년기에 표출되는 많은 종류의 문제 행동에서 청소년들이 접하게 되는 환경적 스트레스에 의한 분노나 충동과 같은 정서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때 그 결과로서 공격성과 같은 행동이 유발된다(Szurek, 1942; Quay, 1964). 정신분열병 또한 아동기에는 잘 나타나지 않다가 청소년기를 들어서면서부터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증상을 야기할 수 있는 특징 중의 하나가 공격성이다(김진학, 1998).

냉소(cynicism)는 일반 사람들의 동기에 대해 불신하는 태도로서 그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항상 경계하는 것을 말한다(Williams & Williams, 고경봉·조성희 역, 1996). 즉, 빈정대는 비웃이나 비꼬는 행동을 말한다. 냉소를 Barefoot(1992)과 Williams & Williams (1993)는 적대감의 인지적 성분으로 보았다. 또 김교현·전경구(1997)는 분노를 적대감의 정서적 성분으로, 냉소를 적대감의 인지적 성분으로, 공격을 적대감의 행동적 성분으로 간주했다.

결국 적대감은 냉소, 분노, 공격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 성격의 대부분은 어린 시절에 결정되며, 특히 부모에 대한 태도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오늘날 우리의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경쟁사회에서 뒤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시와 통제, 학업적 경쟁의식을 자극함으로써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있으며, 이것이 부모와

청소년사이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또 부모의 잘못된 태도는 청소년의 적대감을 증가시켜 부적응 행동을 야기 시키고 있다. 따라서 부모에 대한 태도와 청소년의 적대감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규명하여 청소년 적대감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밝혀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청소년의 적대감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부모에 대한 태도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부모에 대한 태도 하위 영역들의 수준들이 청소년의 적대감에 상대적으로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지역에 소재 하는 일부 중·고등학교에서 재학하고 있는 남·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전체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성 별	여자	302 (50.3)	52(51.5)	52(51.0)	48(49.0)	50(50.0)	50(50.5)	50(50.0)
	남자	298 (49.7)	49(48.5)	50(49.0)	50(51.0)	50(50.0)	49(49.5)	50(50.0)
학교별	중학교	301(50.1)	101(100.0)	102(100.0)	98(100.0)	0(0.0)	0(0.0)	0(0.0)
	고 등 학 교	299(49.9)	0(0.0)	0(0.0)	0(0.0)	100(100.0)	99(100.0)	100(100.0)

구 분		전체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학년별	1 학년	196(32.6)	98(97.0)	0(0.0)	0(0.0)	98(98.0)	0(0.0)	0(0.0)
	2 학년	202(33.7)	3(3.0)	100(98.0)	0(0.0)	0(0.0)	99(100.0)	0(0.0)
	3 학년	202(33.7)	0(0.0)	2(2.0)	98(100.0)	2(2.0)	0(0.0)	100(0.0)
합 계		600(100.0)	101(100.0)	102(100.0)	98(100.0)	100(100.0)	99(100.0)	100(100.0)

본 조사에 앞서 질문지 문항 이해도,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 질문지 작성상의 문제점과 척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2002년 5월 11일부터 5월 17일까지 중·고등학교 1~3학년에 재학중인 12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결과를 바탕으로 질문지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으며, 완성된 질문지를 대전·충남지역의 중·고등학교 1~3학년에 재학중인 남·여학생 880명을 대상으로 하여 2001년 6월부터 7월 사이에 질문지를 배부하여 회수하였다.

회수된 자료는 전부 658부였고, 이중에 응답이 누락된 자료와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설정한 역산 문항간의 응답이 일치하지 않는 자료를 제외한 600부(남학생 298명, 여학생 302명)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 측정도구

1) 부모에 대한 태도

부모에 대한 태도는 Hudson(1982)이 12세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

로 개발한 척도는 Child's Attitude toward Father(CAF) and Mother(CAM) Scales로 각 25문항씩으로 총 5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별 반응양식은 Likert식 5점 척도로 '전혀 아니다 (+1점), '에서부터 '조금 그렇다 (+2점)' '보통 (+3점)' '매우 그렇다 (+4점)' '대단히 그렇다 (+5점)' 까지 반응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그 변인의 성향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며, 척도의 문항 수와 Cronbach α 계수는 <표 2>와 같다.

<표 2> 부모에 태도 척도의 문항간 내적 신뢰도

부모에 대한 태도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 α
부에 대한 태도	25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92
모에 대한 태도	25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93

*: 역산문항

2) 적대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적대감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의 척도는 Williams & Williams(1963)가 개발한 The Hostility Questionnaire를 고경봉·조성희(1996)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척도의 하위 영역별 문항 수와 Cronbach α 계수는 <표 3>과 같다.

원래 이 척도는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검사(the 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 MMPI)에서 적대감에 관련문항에서 50개를 뽑아서 구성하여 발전을 시켰다. 이 척도는 계속 연구가 진행중이며 타당성은 본 출처인 MMPI의 적대감 척도만큼 타당성이 있다고 주장한

다(Barefoot, J. C., et al., 1989).

이 척도는 적대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총 46개 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하위 영역의 측정으로는 냉소 15문항, 분노 15문항, 공격성 1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부 문항들 중에서 청소년의 정서에 부적합한 문구가 있는 12, 18, 28, 29, 30, 34번 문항은 그 의미를 일부 수정하거나 문구를 바꾸어서 사용하였다.

각 문항별로 자신이 선택한 응답과 정답이 일치되면 1점, 일치되지 않으면 0점으로 점수화를 한다. 각 하위영역별로 득점된 점수가 0점에서 +3점 사이는 낮은 수준, +4점에서 +6점 사이는 다소 관심을 가져야할 정도의 중간수준, 점수가 +7점 이상이면 아주 높다고 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이다.

전체적 영역인 적대감은 각 하위 영역별로 얻은 점수를 모두 합하면 되며, 0점에서 +10점 사이는 낮은 수준, +11점에서 +20점 사이는 중간수준, +21점 이상이면 높은 수준이다.

<표 3> 적대감 척도의 문항간 내적 신뢰도

적 대 감	문 항 수	문 항 번 호	Cronbach α
냉 소	15	3, 4, 7, 10, 14, 18, 21, 22, 27, 30, 34, 37, 40, 43, 46	.64
분 노	15	1, 6, 9, 13, 16, 19, 23, 24, 29, 32, 35, 36, 39, 42, 45	.71
공격성	16	2, 5, 8, 11, 12, 15, 17, 20, 25, 26, 28, 31, 33, 38, 41, 44	.75
적대감(전체)	46	1-46	.89

3. 자료처리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win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알아보거나 부모에 대한 태도와 청소년의 적대감 요인별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응답자의 결과를 점수화 하여서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부모에 대한 태도에 따른 청소년의 적대감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를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정으로 Scheffé검증을 실시하였다.

각 척도간의 문항간 내적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Cronbach α 계수를 구하였으며, 척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적대감에서는 하위영역의 문항들의 순서를 서로 혼합하여 놓았으며, 부모에 대한 태도에서는 역산문항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부모에 대한 태도의 영역별 수준

청소년들의 부모에 대한 태도의 하위영역에 대한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부모에 대한 태도의 영역별 수준

부모에 대한 태도	합 계		상 - 상		상 - 하		하 - 상		하 - 하	
	N	%	N	%	N	%	N	%	N	%
부 - 모	600	100.0	257	42.8	67	11.2	103	17.2	173	28.8

결과의 내용에서 각 영역별 수준을 살펴보면 부모가 모두 상의 수준이 42.8%로 수준을 보이며, 부모 중 한 부모만이 상인 수준의 전체가 28.4%, 부모 모두가 하인 수준이 28.8%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모에 관련된 태도가 다소 의미 있게 나타났다.

2. 적대감의 영역별 수준

청소년의 적대감 하위영역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결과의 내용에서 각 영역별 수준을 살펴보면 냉소, 분노, 공격성, 적대감이 동일하게 낮은 수준, 중간수준, 높은 수준의 순으로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청소년의 과반수 정도인 45.8%가 냉소, 분노, 공격성, 적대감의 수준에서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중간 수준도 49.0%를 차지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대단히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적대감요인의 영역별 수준

구 분	합 계		낮은수준		중간수준		높은수준	
	N	%	N	%	N	%	N	%
냉 소	600	100.0	21	3.5	229	38.2	350	58.3
분 노	600	100.0	62	10.3	206	34.3	332	55.4
공격성	600	100.0	114	19.0	222	37.0	264	44.0
적대감(전체)	600	100.0	31	5.2	294	49.0	275	45.8

하위 영역별 수준에서 냉소, 분노와 전체적인 적대감은 높은 수준이나 공격성은 이들의 수준보다 다소 낮은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것은 청소년들이 잠재적인 측면에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행동적인 측면에서는 이들 보다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3. 부모에 대한 태도에 따른 청소년 냉소의 차이

부모에 대한 태도에 따른 청소년 냉소에 대한 유의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부모에 대한 태도에 따른 청소년 냉소점수의 차이는 $F(3, 596)=9.50, p<.001$ 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6> 부모의 태도에 따른 청소년 냉소의 일원변량분석

부모에 대한 태도	냉 소					
	N	M	SD	범위	F	Scheffé
부-모						
상-상 (a)	257	6.61	2.00	2-12	9.50 ***	a < d *
상-하 (b)	67	6.69	1.76	3-10		b < d *
하-상 (c)	103	6.84	1.72	3-11		c < d *
하-하 (d)	173	7.64	2.02	2-13		a < b < c < d *

*: $p < .05$ ***: $p < .001$

사후검증으로 Scheffé검증 결과, 부:하-모:하 (d)의 부모에 대한 태도에 있는 청소년들의 냉소가 부:하-모:상 (c), 부:상-모:하 (b), 부:상-모:상 (a)의 부모에 대한 태도에 있는 청소년들의 냉소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하-모:하 (d)인 경우에 냉소가 평균 7.64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으며, 그 다음으로 부:하-모:상 (c)은 평균 6.84로, 부:상-모:하 (b)

는 평균 6.69로, 부:상-모:상 (a)인 경우에 냉소가 평균 6.61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따라서 청소년의 냉소는 부모에 대한 태도 중에서 부모 모두에 대한 태도가 나쁠 때, 높은 냉소의 점수에 영향력을 받는다. 그 다음은 부에 대한 태도가 나쁠 때, 모에 대한 태도가 나쁠 때 순으로 낮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으며, 부-모에 대한 태도가 다 좋을 때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냉소 점수의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것이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에 대한 태도에 따른 청소년의 냉소는 부에 대한 태도에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4. 부모에 대한 태도에 따른 청소년 분노의 차이

부모에 대한 태도에 따른 청소년 분노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부모에 대한 태도에 따른 청소년 분노점수의 차이는 $F(3, 596)=15.10, p<.001$ 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7> 부모에 대한 태도에 따른 청소년 분노의 일원변량분석

부모에 대한 태도	분 노					
	N	M	SD	범위	F	Scheffé
상-상 (a)	257	6.02	2.50	1-12	15.10 ***	a < b d *
상-하 (b)	67	7.37	2.61	2-11		a < b *
하-상 (c)	103	7.08	2.40	2-12		a < c *
하-하 (d)	173	7.51	2.39	1-13		a < d *

*: $p < .05$ ***: $p < .001$

사후검증으로 Scheffé검증 결과, 부:하-모:하 (d)의 부모에 대한 태도에 있는 청소년들의 분노가 부:상-모:하 (b), 부:하-모:상 (c), 부:상-모:상 (a)의 부모에 대한 태도에 있는 청소년들의 분노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하-모:하 (d)인 경우에 분노가 평균 7.51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으며, 부:상-모:하 (b)는 평균 7.37로, 부:하-모:상 (c)는 평균 7.08로, 부:상-모:상 (a)인 경우에 분노가 평균 6.02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따라서 청소년의 분노는 부모에 대한 태도 중에서, 부모 모두에 대한 태도가 나쁠 때 분노의 높은 점수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모에 대한 태도가 나쁠 때, 그 다음이 부에 대한 태도가 나쁠 때, 마지막으로 부모에 대한 태도가 모두 좋을 때에는 분노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부모에 대한 태도에 따른 청소년의 분노는 모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고 있음이 나타났다.

5. 부모에 대한 태도에 따른 청소년 공격성의 차이

부모에 대한 태도에 따른 청소년 공격성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부모에 대한 태도에 따른 청소년 공격성 점수의 차이는 $F(3, 596)=13.64, p < .001$ 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8> 부모에 대한 태도에 따른 청소년 공격성의 일원변량분석

부모에 대한 태도	공격성					
	N	M	SD	범위	F	Scheffé
상-상 (a)	257	5.27	2.60	1-13	13.64***	a < b < d*
상-하 (b)	67	6.69	2.93	1-12		a < b*
하-상 (c)	103	6.15	2.73	1-12		a < c*
하-하 (d)	173	6.87	2.29	1-14		a < d*

*: p < .05 ***: p < .001

사후검증으로 Scheffé검증 결과, 부:하-모:하 (d)의 부모에 대한 태도에 있는 청소년들의 공격성이 부:상-모:하 (b), 부:하-모:상 (c), 부:상-모:상 (a)의 부모에 대한 태도에 있는 청소년들의 분노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상-모:하 (d)인 경우에 공격성이 평균 6.87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부:상-모:하 (b)는 평균 6.69로, 부:하-모:상 (c)는 평균 6.15로, 부:상-모:상 (a)인 경우에 공격성의 평균이 5.27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따라서 청소년의 공격성은 부모에 대한 태도 중에서, 부모에 대한 태도가 모두 나쁠 때 공격성의 높은 점수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것이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모에 대한 태도가 나쁠 때, 그 다음이 부에 대한 태도가 나쁠 때, 마지막으로 부모에 대한 태도가 모두 좋을 때에는 공격성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부모에 대한 태도에 따른 청소년의 공격성은 모에 대한 태도가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증명된다.

6. 부모에 대한 태도에 따른 청소년 적대감의 차이

부모에 대한 태도에 따른 청소년 적대감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부모에 대한 태도에 따른 청소년 적대감 점수의 차이는 $F(3, 596)=19.60, p < .001$ 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9> 부모에 대한 태도에 따른 청소년 적대감의 일원변량분석

부모에 대한 태도	적 대 감					
부 - 모	N	M	SD	범위	F	Scheffé
상-상 (a)	257	17.98	5.49	7-35	19.60***	a < b < d*
상-하 (b)	67	20.85	5.44	9-32		a < b*
하-상 (c)	103	20.06	5.44	9-33		c < b*
하-하 (d)	173	21.84	4.89	8-35		d < a*

*: $p < .05$ ***: $p < .001$

사후검정으로 Scheffé검정 결과, 부:하-모:하 (d)의 부모에 대한 태도에 있는 청소년들의 적대감이 부:상-모:하 (b), 부:하-모:상 (c), 부:상-모:상 (a)의 부모에 대한 태도에 있는 청소년들의 적대감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하-모:하 (d)인 경우에 적대감의 평균이 21.84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부:상-모:하 (b)는 평균 20.85로, 부:하-모:상 (c)는 평균 20.06로, 부:상-모:상 (a)인 경우에 적대감이 평균 17.98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따라서 청소년의 적대감은 부모에 대한 태도 중에서, 부모 모두에 대한 태도가 나쁠 때 적대감의 높은 점수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것이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모에 대한 태도가

나쁠 때, 그 다음이 부에 대한 태도가 나쁠 때, 마지막으로 부모에 대한 태도가 모두 좋을 때에는 적대감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부모에 대한 태도에 따른 청소년의 적대감은 모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고 있음이 나타났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부모에 대한 태도와 청소년의 적대감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모에 대한 태도와 청소년의 적대감이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본 연구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모두 좋은 태도의 수준이 42.8%를 보이고 있으며, 부모 중 한 부모만에 대한 좋은 태도의 수준은 28.4%, 부모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모두가 나쁜 수준은 28.8%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모에 관련된 태도가 의미 있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의하면 모에 대한 태도가 청소년들에게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청소년의 적대감 수준에 있어서는 낮은 수준이 5.2%, 중간수준이 49.0%, 높은 수준이 45.8%로 청소년의 과반수 정도가 적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간 수준도 4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대단히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위 영역별 수준에서는 냉소, 분노와 전체적인 적대감은 높은 수준이나 공격성은 이들의 수준보다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청소년들의 잠재적인 측면에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행동적인

측면에서는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셋째, 부모에 대한 태도와 청소년의 냉소 관계에서는 부모에 대한 태도 중에서 부모의 태도가 모두 나쁠 때 냉소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이 부에 대한 태도, 모에 대한 태도, 마지막으로 부모의 태도가 모두 좋을 때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에 대한 태도가 청소년의 냉소에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부모에 대한 태도와 청소년의 분노 관계에서는 부모 모두에 대한 태도가 나쁠 때, 그 다음이 모에 대한 태도가 나쁠 때, 그 다음이 부에 대한 태도가 나쁠 때, 마지막으로 부모에 대한 태도가 모두 좋을 때에는 분노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이 밝혀졌다. 특히, 청소년 분노는 모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부모에 대한 태도와 청소년의 공격성 관계에서는 부모에 대한 태도가 모두 나쁠 때 공격성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모에 대한 태도가 나쁠 때, 그 다음이 부에 대한 태도가 나쁠 때, 마지막으로 부모에 대한 태도가 모두 좋을 때에 공격성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이 밝혀졌다. 특히, 부모에 대한 태도에 따른 청소년의 공격성은 모에 대한 태도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이 밝혀졌다.

여섯째, 부모에 대한 태도와 청소년의 적대감 관계에서는 부모에 대한 태도가 모두 나쁠 때 적대감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모에 대한 태도가 나쁠 때, 그 다음이 부에 대한 태도가 나쁠 때, 마지막으로 부모에 대한 태도가 모두 좋을 때에는 적대감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이 밝혀졌다. 특히, 부모에 대한 태도에 따른 청소년의 적대감은 모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한다면 부모에 대한

태도가 청소년의 적대감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모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며, 그 다음이 부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에 대한 태도보다 모에 대한 태도가 청소년들의 적대감에 상대적으로 더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것은 청소년 적대감 형성에 있어서 모에 대한 태도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박영신 외(2000)와 이지아·위광휘(2000)의 연구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지지에 대한 발달조사에서 고등학교의 단계에서 부모의 사회적 지지가 높았는데, 그 중에서도 모의 사회적 지원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김현실(2002)의 한국 청소년 비행의 성차 분석 연구에서의 모의 잘못된 양육방식이 역기능적으로 나타난 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된다. 또한 신성자(2001)의 연구에서 부모가 자녀에 대한 양육 수준을 비교한 결과 모의 양육수준이 부의 양육수준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부모 중에서 모의 역할이 청소년들에게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부모에 대한 태도는 청소년에게 있어서 정신적, 심리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부모의 모두에 대한 태도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이 모에 대한 태도이다. 따라서 가정에서 부모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우선적으로 개발·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부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중에서 중요한 요소가 의미 있는 타인으로부터의 존경과 인정, 관심이기 때문이다.

위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한계로는 전국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고, 아직은 청소년들의 부모에 대한 태도와 적대감에 관련된 선행 연구가 많지 않아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적대감에 영향을 주는 부모의 태도에

대한 후속 연구가 계속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참 고 문 헌

- 강현숙(1989).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가정환경 변인과의 관계.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교현·전결구(1997). 분노, 적대감 및 스트레스가 신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 79-95.
- 김진학(1998). 21세기 청소년 정신건강. '98의정부시 청소년 정신건강 세미나.
- 김주연(1996). 가족기능에 따른 아동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 김준호·김순형(1995). 가정환경과 청소년 비행.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현실(2002). 한국 청소년 비행의 성차 분석. 대한간호학회지, 32(4), 492-505.
- 도복늬·이길자·오경옥·안황난·김후자·김문영·손영주·김은자·이경자·김연화(1999). 최신정신간호학. 도서출판 정담.
- 박영신·김의철·정갑순·이상미·권혁호·양계민(2000). 초, 중, 고등 학생의 생활만족도 차이와 형성 및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5(1), 94-118.
- 신민섭·오경자·홍강의(1993). 청소년기 자아정체감 혼란과 부적응행동. 한양대학교 대학생활연구, 11, 71-84.
- 신성자(2001). 부부의 자녀폭력 및 부부폭력과 자녀양육수준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7, 139-174.
- 오경자·이혜련(1990). 한국 아동 청소년의 문제행동 증후군 연구 I.

- 한국심리학회지. 3(1). 33-48.
- 이가연(1993).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지지와 정신건강과의 관계.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호(1999). 한국청소년의 물질남용에 대한 탐색적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8(2). 237-255.
- 이상로·이관용(1981). 성격이론.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 이윤진(1988). 부모 자녀 관계의 변화와 문제. 중앙적성출판사.
- 이지아·위광휘(2000). 사회적 지지망에 관한 발달적 연구. 교육심리연구. 14(2). 5-28.
- 임선화(1987).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척도와 자녀의 자아개념 및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용문(1985). 가정환경과 자아개념과의 관계 연구. 개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강의(1987). 청소년 정신과 입원환자의 가족역동. 서울의대정신의학. 12(1). 23-40.
- Williams, R., & Williams, V., 고경봉·조성희 역(1996). 분노가 죽인다. 한국언론자료간행회.
- Barefoot, J. C., Dahlstrom, W. G., & Williams, R. B.(1983). Hostility, CHD incidence, and total mortality: a 25-year follow-up study of 255 physicians. *Psychosomatic Medicine*, 45, 59-63.
- Barefoot, J. C., Dodge, K. A., Peterson, B. L., Dahlstrom, W. G., & Williams, R. B.(1989). The cook-medley hostility scale: item content and ability to predict survival. *Psychosomatic Medicine*, 51, 46-57.
- Barefoot, J. C.(1992). *Development in the measurement of hostility*.

- In H. S. Friedman(Ed.), *Hostility, coping & health*. Washington DC: APA.
- Caspi, A., Elder, G. H., & Bem, D. J.(1987). Moving against the word: life-course patterns of explosive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23, 308-313.
- Dembroski, T. M., MacDougall, J. M., Costa, P. T., & Grandits, G. A.(1989). Antagonistic hostility as a predictor of coronary heart disease in the multiple risk factor intervention trial. *Psychosomatic Medicine*, 51, 514-522.
- Erikson, E. H.(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Company. 179.
- Eron, L. D., Huesmann, L. R., Brice, P., Fischer, P., & Mermelstein, R.(1983). Age trends in the development of aggression, sex typing, and related television habits. *Development Psychology*, 19, 71-77.
- Friedman, M., & Rosenman, R. H.(1959). Association of specific overt behavior pattern with blood and cardiovascular findings: blood cholesterol level, blood clotting time, incidence of arcus senilis, and clinical coronary artery diseas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169, 1286-1296.
- Hartup, W. W.(1974). Aggression in childhood: Developmental perspective. *American Psychology*, 29, 336-341.
- Hecker, M., Chesney, M., Black, G., and Frautschi, N.(1988). Coronary-prone behaviors in the western collaborative group study. *Psychosomatic Medicine*, 50, 153-164.

- Houston, B. K., & Kelly, K. E.(1989). Hostility in employed women: relation to work and marital experiences, social support, stress, and anger express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75-182.
- Hudson, W. W.(1982). *The clinical measurement inventory*: a field manual. Chicago: Dorsey Press.
- Jenkins, C. D.(1976). Recent evidence supporting psychologic and social risk factors for coronary disease. *New England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1, 175-177.
- Kolb, L. C., & Brodie, H. K.(1982). *Modern clinical psychiatry*. W. B. Saunders Company.
- Krantz, D. S., & Manuck, S. B.(1984). Acute psychophysiologic reactivity and risk of cardiovascular disease: A methodological critique. *Psychological Bulletin*, 96, 435-464.
- Mussen, P. H., Conger, J. J., & Kagan, J.(1974).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ity*, 4th ed.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Inc.
- Nye, F. L.(1958). *Family relationship and delinquent behavior*. New York: Wiley.
- Quay, H. C.(1964). Dimension of personality in delinquent boys as inferred from the factor analysis of case history data. *Child Development*, 35, 475-484.
- Saavedra, J. M.(1980). Effects of perceived parental warmth and control on the self-evaluation of puertorican adolescent male. *Behavior Science Research*, 15, 41-54.
- Shekelle, R. B., Gale, M., Ostfeld, A. M., & Paul, Oglesby(1983),

- Hostility, risk of coronary disease and mortality, *Psychosomatic Medicine*, 45, 219-228.
- Siegmán, A. W.(1994). *From type A to hostility to anger*. In A. W. Siegmán & T. W. Smith(Eds.), *Anger, hostility and heart*. New Jersey: Lawrence Erlbaum.
- Suarez, E. C., & Williams, R. B.(1989). Situational determinants of cardiovascular and emotional reactivity in high and low hostility men. *Psychosomatic Medicine*, 51, 404-418.
- Szurek, R. A.(1942). Notes on the genesis of psychopathic personality trends. *Journal of Psychiatry*, 5, 1-6.
- Vasta, R., Haith, M. M., & Miller, S. A.(1992). *Child Psychology: The modern science*. New York: John Wiley & Sons
- Williams, R., & Williams, V.(1993). *Anger kills*. New York: Bandom House.

ABSTRACT

The Relation between Attitude Toward Parents
and Adolescents' Hostility

Han, Sang-Hoon* · Kang, Seok-Ki**

This study is the research to find out what kind of relationship there is between the attitude toward parents and hostility of the adolescents. For it, check the level of attitude toward parents, and the level of adolescents' hostility, secondly, investigating how the adolescents' hostility corresponding to attitude to parents degree affects it.

As the result of this analysis, proved following facts, First, For the attitude toward parents, respondents of more than majority indicated good-attitude, the others respondents indicated bad-attitude for one or two parent of them. Second, for the hostility of the adolescents' respondents of more than majority indicated higher level of hostility, and the others indicated middle as I reflect on the result as above, it was proved that adolescents' hostility reached higher level. Thir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ttitude toward parents and adolescents' cynicism, it was found that adolescents' anger was much influenced by father's attitude. Fourth,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ttitude toward parents and adolescents' anger, it was

* professor of education, Chungnam University

** lecturer of social welfare, Mokwon University

found that the mother's attitude exerted very much influence upon adolescents' anger. Fifth,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ttitude toward parents and adolescents' aggression, it was found that the mother's attitude exerted very much influence upon adolescents' aggression. Sixth,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ttitude toward parents and adolescents' hostility, mother's attitude exerted much influence upon adolescents' hostility. Therefore, adolescents' aggression was much influenced by parents, more than all, more influenced by mother than father. So, I conclude that attitude is the most important things above all.

As I reflection the result as above, I conclude that the method to reduce the level of adolescents' aggression should be studied, and that the parents attitude and affirmative program should be established as the specific method according to it.